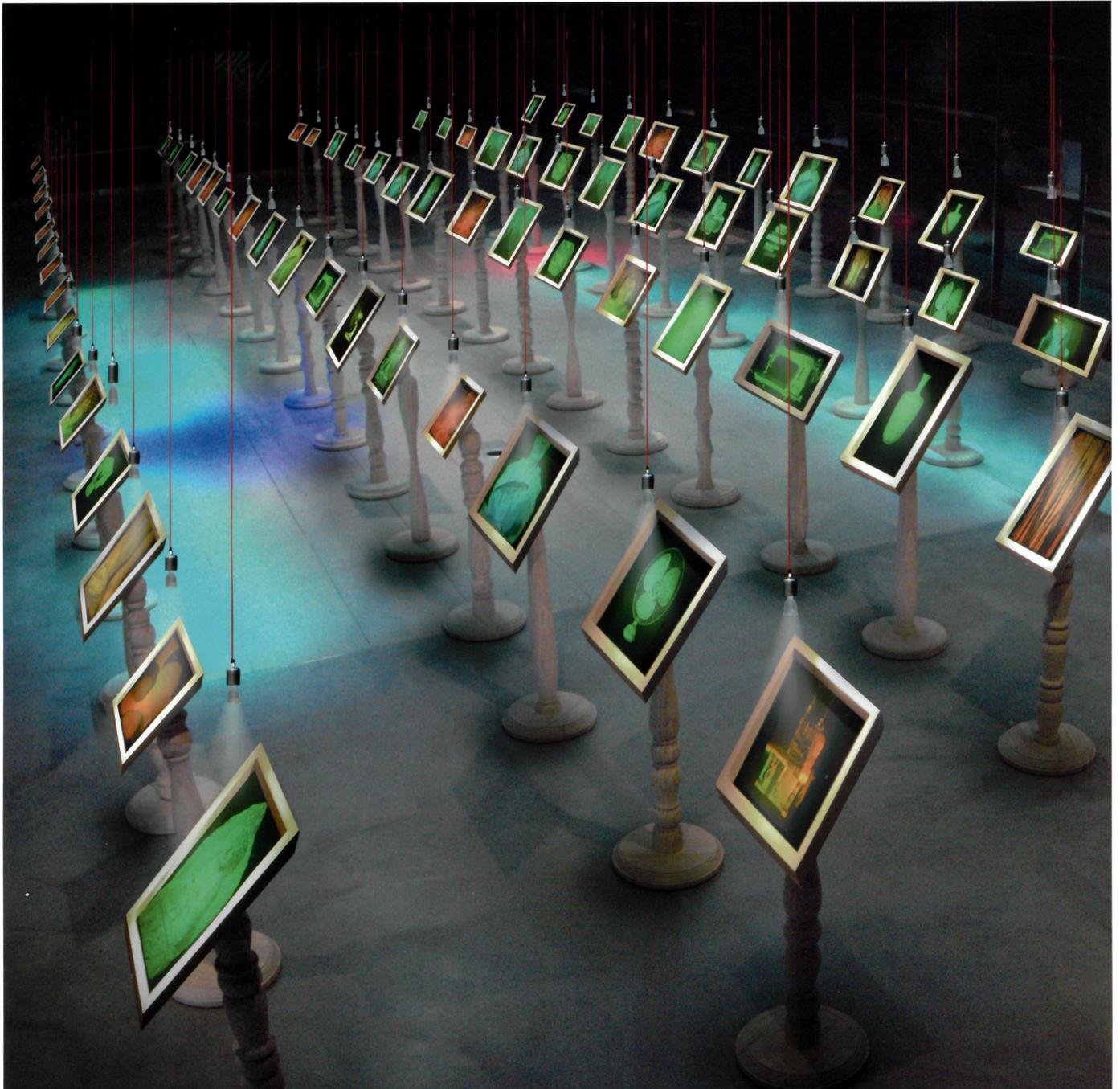


The Monthly Photo Art Magazine

사진예술 잡지

07
9 771739 584000
ISSN 1739-5844



2013 동강국제사진제 미리보기
휴전 60주년 특집 | 비무장지대 3인
화제의 전시 | <넷이서 하나>

vol.291 7



1_염중호_예의를 잃지 맙시다_inkjet print_110x110cm_2012



3_염중호_예의를 잃지 맙시다_inkjet print_110x110cm_2012

Yum Joong-ho

예의를 잃지 맙시다
염중호

하이트 컬렉션 갤러리
2013.6.21-8.10
02-3219-0271



9_염중호_예의를 잃지 맙시다_inkjet print_20x20cm_2010

염중호 Joongho Yum

1965년 서울 출생

2004 동국대학교 영화과 박사후과정 수료, 서울

1997 파리 8대학 석사 졸업(MFA), 프랑스

1991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졸업(BFA), 서울

개인전

2012 《타인의 취향 The taste of others》,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2009 《나우 댓 아이 돈 노 Now that I don't know》,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2007 《새로운 경계 Nouvelles Frontières》,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2001 《백만장자와 숙녀 Millionaire and a lady》, 일주아트센터, 서울

1999 《물물교환》, 필로소피 가든 젤코바 트리, 서울

《염중호 - 사생활》, 서남미술관, 서울



14_염중호_예의를 잃지 맙시다_inkjet print_100x100cm_2010

프랑스와 서울을 오가며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염중호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진으로 기록한다. 작가는 자신의 이미지를 기록과 상상, 재현의 중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데, 주변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상들에서 간과하기 쉬운 그들의 관계와 질서를 찾으려 한다.

염중호는 대도시의 화려한 외관, 숨막힐 정도로 정확하게 짜인 구조 대신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도시의 주변부를 보여준다. 사람들의 관심 영역 밖으로 밀려난 변두리 지역에서 그는 소소한 것들에 대한 세밀한 관찰력을 발휘하여 우리들의 삶을 미시적으로 살핀다. 하지만 그의 사진은 대상과 동화되지 않으며 무심히 대상을 담아낼 뿐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는 평범한 장면들이 작가의 작품에 담기게 되면서 당연한 일상은 의심스러워지고 낯선 것이 되어버린다. 그는 버려진 것들이나 일상적이고 어찌보면 사소한 것일지도 모르는 존재들에 관심을 갖는다. 막힌 벽, 사라진 문, 또는 우스운 모습일 한 버려진 것들의 존재, 그것들과 주변과의 관계에 놓여진 혹은 사물들 간의 관계성과 그 당위성 등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들을 시각화한다.